

Winter 2014 Vol. 69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



CONTENTS

- 04 우리는 플랜가족 1
꿈을 그립니다 김명기 후원자
- 06 후원소개
아동후원, 플랜과 함께 생기는 변화
- 08 지구촌을 간다 1
꽃씨를 심어 예쁜 꽃을 피웁니다
- 10 Plan Board 1
- 12 지구촌을 간다 2
무엇이든 꿈꾸어도 괜찮아
- 14 플랜 긴급구호
끝나지 않은 공포, 에볼라 바이러스
- 16 지구촌을 간다 3
함께 꿈꾸는 송재림의 드림 빌리지
- 18 Plan Campaign
- 20 나눔의 행복
마세다린
- 21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인도네시아
- 22 우리는 플랜가족 2
2014 후원자 Award
- 24 Plan Board 2
- 25 Enjoy Plan
- 26 플랜 소식

작은 실천, 큰 사랑

· 실천 하나 ·

후원금은 자동이체 혹은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셨다면, 결제정보 수정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 실천 둘 ·

도로명 주소 및 변경된 연락처 등록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 후원문의 | 02.790.5436 | 이메일 | kno@plankorea.or.kr

| 통 권 | 제 69호 | 발행일 | 2014.12.17 | 발행인 | 노영찬 | 발행처 |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7천 4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꿈을 그립니다 김명기 후원자

부산미술협회 제9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개인전 5회, 부스전 8회, 초대전 2회 등 김 밝은터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구족화가 김명기씨는 7살 때 갑 전사고를 당해 두 손을 잃었다. 5형제 중 맏이로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손까지 잃은 그는 1964년 양친회(Foster Parents Plan, 현 플랜코리아)를 만났다.

Plan Family

Q. 양친회 후원을 받다가 이렇게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시작하신지 벌써 7~8년 정도 되셨네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전에 티비에서 러브콘서트를 보다가 플랜코리아가 양친회였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플랜코리아는 몰라도 양친회는 제가 어릴 때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친숙하게 알고 있거든요. 양친회라는 말에 귀가 번쩍 했죠. 예전에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갚아야겠다... 이제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바로 아동후원을 시작했죠.

Q. 양친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릴 때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4년 정도, 6학년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후원 받다가 중학교 갈 시기가 되었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 때는 후원을 받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죠. 후원금을 받는 날엔 어머니께서 쌀 사시고, 술빵도 사먹고 학용품도 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편지는 3-4번 정도 주고 받았는데, 그때 스웨덴 양부모가 보내준 엽서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꿈이랄까 보다는 동경이었죠. 고이 보관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곤 했어요. 엽서 앞면에 있는 이국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저기 한 번 가보면 좋겠다... 그때는 살기도 힘든데 외국은 꿈꾸는 것조차 힘들었죠.

Q. 갑전사고로 두 손을 잃고, 중학교에 진학도 어려워지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힘든 시기에 그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독학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스무 살에 어렵게 그림을 시작했죠.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제 형편에 학원에 다닐 수가 있어야죠. 고민고민 끝에 미술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운 좋게 스승님을 만났어요. 2-3개월 정도만 배우고 그림도 독학으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회비 없이 그림을 알려주셨어요. 집에서 연습하라고 조각상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림을 쪽 그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Q.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림이 유명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구족화가로 등록이 되면서 장학금을 받고,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외국 땅도 밟아봤죠. 1992년 대만을 시작으로 5년마다 한번씩 중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50년 전 엽서를 보면서 동경하던 유럽도 방문했어요. 또 하나는, 어릴 때 공부하는 걸 포기했었는데, 그게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보고, 현재는 방통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Q. 케냐, 캄보디아에 있는 후원아동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라 희미하게 떠오르지만, 후원을 받으면서 든든하다고 느꼈던 건 기억나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도 저로 인해 든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는 찾아오니까, 그걸 기억하고 열심히 살면 좋겠어요.

Q.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꿈꾸는 일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플랜코리아를 통해서 제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듣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플랜코리아와 함께 제 이야기가 퍼지고, 제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기 후원자님에게 손은 좌절이자 꿈이다.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손이 등장한다. 자연이 손으로 형상화되었다가, 훗날 그가 지을 미술관이 되기도 한다. 미술관을 지어 사회에 환원하는 게 그의 또 다른 꿈이다. 플랜코리아와 함께 전 세계 장애아동들을 위한 편딩도 기획하고 있다.

좌절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꿈을 그려나가는 자신처럼, 그의 그림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를 바라고 있다.



후원 소개

아동후원, 플랜과 함께 생기는 변화

인도네시아 우주드

후원아동에서 교육학 석사로, 배우의 여정

교육학 석사가 된 우주드는 유년시절 플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는 어린 시절 “배우는 것은 필수!”라는 슬로건을 보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 2003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회의에 참여했던 순간을 “가장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예전 자신이 플랜에서 받았던 기회들을 이제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플랜의 프로그램은 전문적이고, 직원들은 모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플랜의 활동을 롤모델로 삼아 마을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짐바브웨 타완다 데이비드 만하이

플랜의 후원으로 인해 변화된 삶

짐바브웨 블라와요 지역에 사는 타완다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조부 모님과 함께 생활했다. 일부 다처제의 풍속이 남아있는 부족이라 모두 25명이 함께하는 대가족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열살 되던 해, 학비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플랜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타완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플랜의 교복, 신발, 음식, 교과서, 학용품, 그리고 학비 지원으로 인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마을의 화장실, 저수지 등을 개·보수 하면서 지역에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다.

타완다는 차석으로 7학년을 통과하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석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런 기회를 준 플랜에 정말 감사 드리고 싶어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 아동결연

어린이와 1:1결연은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후원입니다. 플랜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더 후원하기

1만원을 더 후원해 마을을 함께 변화시켜 주세요!

마을에 우물이 생겨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보건시설이 생겨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플랜의 어린이 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후원아동이 사는 마을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 추천하기

주변 지인들에게 아동결연 후원을 추천해주세요. 나눔으로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을 통해 결연을 맺은 모든 후원자님과 친구분께는 플랜 크리스탈 볼펜을 드립니다.

*결연 신청시 반드시 추천해주신 후원자 이름을 밝혀주세요.



지 구 촌 을 간 다 1

꽃씨를 심어 예쁜 꽃을 피웁니다

글_ 신수지 홍보대사 / 사진_ 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캄보디아는 내게 ‘기아’와 ‘말라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두려운 곳이었다. 밤 늦게 도착한 캄보디아 공항에서 만난 모기떼들의 환영식은 두려움의 한 부분을 장식했고, 밤 잠을 설치게 했던 도마뱀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았다. 이런 나의 두려움은 플랜의 이동 차량을 타는 순간부터 설렘과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부모님 세대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옛날 대한민국의 열악했던 옛모습을 보는 듯하여 오히려 정겨운 느낌마저 들었고, 이렇게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만의 웃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모습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사랑스러운 후원아동 리아

떠나오기 전부터 두 명의 후원아동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고민하며 웃이랑 학용품, 한국과자 등을 챙겼다. 아이들이 좋아해야 할텐데... 두 시간 반, 구불구불 길을 달려 리아를 만났다. 사랑스런 리아는 선생님이 되게 꿈이라고 했다. 알 수 없는 캄보디아어로 쓰여진 책을 보여주며 웃는 리아의 모습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후원의 기쁨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리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개구쟁이 로울트

다음날 만난 로울트는 학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이다. 학업 이야기를 하니 굉장히 우울해하더니, 준비해온 장난감 선물을 주니 함박웃음을 짓는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공놀이도 하고 배드민턴도 함께 쳤다. 더위에 지칠 줄 모르고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며, 끈기와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역시 아이들은 재능이 각기 다른가 보다. 한국에서 가져온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고 떡볶이와 호떡 등을 만들어 로울트네 가족과 마을 주민들을 모두 초대하여 작은 마을 잔치를 열었다. 오가는 음식 속에서 정이 싹튼 다더니, 음식을 나누고 나니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아 마음이 벅찼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조, 하나 둘 셋!

리아가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로, 플랜에서 이 학교에 4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한다. ECCD센터(유치원), 도서관, 식수펌프, 아침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조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하나 둘 셋! 팔다리를 늘리고 매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함께 했다.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다리를 위로 들었더니 아이들이 놀라서 까르르 웃다가 나중에는 제법 잘 따라했다. 함께 피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꼬리잡기도 하고 나니 땀이 온 몸을 적셨지만 기분만은 정말 좋았다. 모인 아이들에게 선물로 비누를 나눠주며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자라기를 바래본다.

플랜과 함께 꽃씨를 심다

후원사업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플랜의 사업은 유치원, 학교지원사업, 빗물정수사업, 위생교육과 보건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 주려는 ‘인간애’가 가득 찬 사업이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플랜의 활동을 보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후원 사업의 지속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며,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보람의 꽃씨를 떨어뜨려 후원 사업에 예쁜 꽃을 활짝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해본다.

The좋은여행 일곱번째 이야기
태국 북부의 문화 중심지

올 겨울에는 플랜과함께 더 좋은여행을 다녀오세요!!

치앙마이로 떠나요!



2015년 겨울, 일곱번째 "The좋은여행"에 참가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플랜의 활동 지역 견학과 후원아동을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여행, The좋은여행이 아동 방문을 망설이셨던 분들, 플랜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방의 장미'로 불리는 치앙마이 문화탐방 및 참가비의 일정 금액을 프로젝트 사업 후원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만나보세요.

기간	2015.01.28 ~ 2015.02.01 (3박 5일)
지역	태국 치앙마이 (Chiang Mai)
모집 인원	플랜코리아 후원자 및 가족 15명 *태국 아동을 후원하고 있지 않으셔도 참가 가능합니다. *가족은 4인 이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2014년 10월 27일 ~ 12월 28일 (선착순 마감) *태국은 1월이 성수기로 비행기 좌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방문 내용	플랜사무소 견학, 후원아동 및 마을 방문, 봉사활동, 지역 문화 탐방 및 관광
비용	약 160만원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프로젝트 후원금, 프로그램 진행비 및 관광, 여행자 보험 등 포함) * 불포함 사항: 개인 경비
신청 방법	1. 참가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2. 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kno@plankorea.or.kr)로 접수 3. 선입금 20만원 입금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확인 연락 드립니다.
문의	02-790-543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과 경비는 현지사정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신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나니 마치 제 도움으로 지역이 발전한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더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제 6회 베트남 The좋은여행에서, 박기영 후원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후원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졌고, 봉사의 의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제 4회 라오스 The좋은여행에서, 이나은 후원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여행, 내 삶을 되돌아보며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된 여행.
제 3회 캄보디아 The좋은여행에서, 서상기 후원자

P
L
A
N
K
O
R
E
A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2014년 한 해에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동참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기부금 공제 받으세요!

기부금 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해주세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2014년 8월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됩니다. 단, 소득세법 제 145조, 제 16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용도로는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안내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월까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 기부금영수증-후원자명/후원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2 홈페이지 출력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며, 2014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15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 해당년도 PDF출력 클릭

3 우편수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로 변경해주세요.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 기부영수증 → 우편수령함 체크

2016년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이 일괄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해주세요.

우편비를 절감하여 아동에게 더 많은 후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 plan_a@plankorea.or.kr 또는 02-790-5436(내선311~314)



지구촌을 간다 2

무엇이든 꿈꾸어도 괜찮아

KDB 대우증권은 재해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누사 텡가라 티무르 지역 내 5개의 학교를 개·보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KDB 대우증권 봉사단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보기만 해도 아픈 자갈바닥을 맨발로 달리며 환하게 웃고, 슬쩍 내민 오른손을 보면 수줍어하다가도 어느새 살포시 잡아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만히 눈을 맞추면 어느덧 행복이 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로 발리까지 7시간, 발리에서 쿠팡까지 2시간, 쿠팡에서 자동차로 약 110km를 달려 인도네시아 티모르 텡가 셀라탄 지역에 있는 Muik'ana(무이카나)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길었던 이동시간으로 쌓인 고단함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보니 아이들에게 무엇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먼저,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노력 봉사를 시작했다. 현지에는 대나무를 이용해 풋살 골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과 재건축 교실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혹은 공기와 뜨겁게 내리 쬐는 햇볕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우리의 움직임과 표정 하나하나에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며 기필코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하리라 다짐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맞으면 아프기까지 한 비를 허겁지겁 피하면서도 '벽화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사흘 안에 다 그리지 못하면 어쩌지'하는 생각에 비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바로 그 때 "그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제야 비가 내린다"며 "여러분의 방문을 하늘도 축복하는 듯하다"는 마을 주민의 말에 "그래...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내리는 이 비도 말이다. 마을 주민의 지혜처럼 나타난 현상에 대해 최고의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것. 결국 그렇게 깨달은 감사한 마음이 모여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마음 한 곳이 숙연해졌다.

노력 봉사와 더불어 선생님 대상 컴퓨터 교육, 학부모·학생 대상의 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KDB대우증권 직원들이 직접 기획·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직원들이 진행 보조 및 통역을 도와줌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희망을 꿈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랐다. 이 외에도 플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직접 만든 바람개비 선물하기, 미니 올림픽 등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아름다운 아이들의 목소리와 미소 그리고 눈빛이 돌아오는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마중해주는 것만 같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먼저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오리라'라는 말이 있다. 떠나기 전 까지만 해도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열악한 환경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특히 교실 외벽에 그린 벽화처럼 아이들이 가슴속에 꿈의 씨앗을 품고, 물과 햇빛과 같은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선물해준 그 아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진다.

글_ KDB대우증권 홍보실 김보람 증권사원
사진_ KDB대우증권 봉사단

플랜 긴급구호

2014년 전 세계는 ‘에볼라 공포’에 휩싸였다. 에볼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현재까지 1만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고 이 중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출처: 세계보건기구, 2014.12.03) 하지만 현재까지의 에볼라 사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에볼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Ebola virus

끝나지 않은 공포, 에볼라 바이러스

지금, 에볼라가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볼라 고아

“아버지와 언니가 아프더니, 8월에 죽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아팠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죽는걸 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에볼라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은 에볼라 고아가 되었다. 에볼라 고아들은 감염을 우려하는 마을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받는다.

텅 비어버린 학교

에볼라를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피해 당국은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내 모든 공공모임을 금지해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어린이들은 몇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들은 에볼라 격리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조혼과 10대 임신률 증가

에볼라로 인해 여자어린이들은 강제 조혼, 10대 임신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여자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조혼으로 인해 여자어린이들은 배움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조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과 기회의 제한으로 다시 한번 고통 받게 된다. 에볼라로 인해 더욱 부족해진 의료서비스로 어린이들은 임신 혹은 출산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또한 지역 보고서는 에볼라 이후 강간과 성폭행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린이들은 집에 방치되고, 여자어린이들은 성 매매, 성 착취 등에 더욱 취약해진다.

공포, 충격 그리고 트라우마

감염된 시체를 만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치우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된 사체들을 보면서,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들은 공포, 충격 그리고 트라우마에 빠진다. 어린이들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스크를 끼고 보호 장비를 한 의료진들이 그들의 집과 이웃집으로 들어가 살충제를 뿌리는 걸 목격한다. 집안에 갇혀 다른 활동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들의 심리상태와 걱정을 표현하고 상담을 도와줄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

플랜은 에볼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에볼라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라디오 방송, 게시판, 포스터 등을 이용한 에볼라 질병 정보 제공 및 예방 캠페인 진행
-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장소 살균소독 및 손씻기 시설 마련



- *치료 장비, 기본 약품 등 다양한 보급품 제공
- *에볼라 감염 환자와 보건 인력을 위한 식량 공급
-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 및 트레이닝
- *에볼라 감염자 치료 지원



- *에볼라 관리 지역 센터를 운영,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들 기본적 치료와 검진 제공
- *에볼라 고아 보호
- *긴급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에볼라 긴급구호 지원]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해피빈 콩 기부하기 ▶ 플랜코리아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에서 플랜한국위원회 검색) ▶ 서아프리카, 에볼라 공포



지구촌을 간다 3

함께 꿈꾸는

송재림의 드림 빌리지

글_ 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김혜현 / 사진_ 포토그래퍼 고운

모두가 꿈꾸는 드림 빌리지는 어떤 모습일까? 모든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 아픈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마을? 현실 불가능 또는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만 같은 당찬 비전을 외치며 송재림 홍보대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단순 후원아동 방문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동 방문을 넘어 아동이 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드림 빌리지를 꿈꾸는 송재림 홍보대사의 캄보디아 방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방문 전 우리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한 마을을 선정했다. 씨엠립 스페이스남 주의 프놈데이 마을. 183가정 837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프놈데이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우물을 건립하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마을에는 10개의 우물이 있으나 식수로 활용하는 우물은 고작 1개라고 했다. 그나마 건기가 되면 다 말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우물을 함께 둘러보았다. 얼핏 들여다 보아도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우물의 위생상태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구덩이처럼 파여진 우물의 생김새였다. 덩그러니 구덩이처럼 파진 우물에서 아이들은 물을 길다가 우물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다. 마을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한다는 우물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보였다. 펌프가 달려 제법 주변 정리는 되어 보였지만 어설픈 나무판자로 가려놓은 우물 뚜껑을 열어 보니 대충 보아도 동동 떠다니는 나뭇잎과 기타 불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우물을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비위생적인 우물을 이용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우리가 떠나도 기본적으로 상비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약도 나누어 주었다. 하나라도 약을 더 가져가려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아프면 언제든 약을 나누어 주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보건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은 송재림 홍보대사의 후원아동을 만나보자는 취지 아래 시작되었다. 열네 살 사춘기 소년 책팩은 할머니와 어머니와 살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다. 책팩의 하교시간에 맞춰 교실을 찾은 우리들은 송재림 홍보대사의 일본 팬들이 직접 전달해준 문구를 나누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치 도구를 선물하며 양치수업도 진행했다. 직접 앞에서 시범을 보이니 제법 잘 따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드림 빌리지의 주인공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수업 후 책팩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언뜻 보아도 낡아 보이는 집. 삐걱대는 계단을 수리하고 여기저기 틈이 보여 비가 새는 외벽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곳을 고치며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아빠의 흔적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턱없이 부족한 공구로 공사는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돌아볼 수록 자꾸만 부족한 게 보인다. 급하게 자동차 배터리와 전구를 선물해 밤에도 책팩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들을 위한 선물에 어머니가 더 기뻐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이 찡해서 손을 잡으니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쉽사리 손을 놓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깨끗한 새로운 우물을 만들어주고, 보건소를 건립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의 방문이었는데 우리는 많은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작은 움직임으로 모두가 꿈꾸는 드림 빌리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가장 컸다. 송재림 홍보대사의 아이디어로 드림 빌리지 온라인 모금과 홍보가 시작되었다. 아동결연 후원, 지역개발사업 후원, 플랜샷 판매 수익금 기부 등 드림 빌리지 건립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드림 빌리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 희망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꿈꾸는 드림 빌리지가 아닐까? 모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작은 나눔 하나 하나가 모여 만들어질 드림 빌리지를 꿈꾸며 오늘도 드림 빌리지에 꿈의 벽돌 한 장을 얹어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여자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플랜은 끊임없는 사회적 악습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여자아이들의 교육이 전 세계의 우선 순위가 되다

2014년 10월 11일은 UN에서 제정한 세계 여자아이의 날이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은 빈곤과 차별로부터 고통 받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날로, 올해는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 또한 2백 3십만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플랜의 Raise Your Hand 캠페인에 참여하여 전 세계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지지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지지한다면,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캠페인은 여자아이의 교육권을 지지한다는 뜻을 담아 손을 높이 들고 사진을 찍어 UN에 제출하는 청원 운동이다. 플랜은 2년 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여자아이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게 확립시키기 위해 Raise Your Hand 캠페인에 착수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말랄라는 여자아이의 교육을 위해 Raise Your Hand 캠페인을 지지하며, 손을 높이 들었다. 말랄라는 2012년 10월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주장해 탈레반에게 피격을 당한 후,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앞장서는 전 세계의 대변인으로 부상했다.

말랄라 외에도,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홍보대사인 여배우 프리다 핀토와 유엔의 교육 특별 특사인 고든 브라운 등 다수의 지지자들이 손을 높이 들어 캠페인을 지지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플랜의 BIAAG 캠페인 홍보대사
프리다 핀토



학교 밖의 6천 5백만 명의 여자아이들

전 세계적으로, 6천 5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5명 중 1명의 여자아이는 매일 일어나는 빈곤, 차별, 폭력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다. 모든 여자아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여자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교육을 통해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또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자아이가 중등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기대소득은 15~25% 증가한다.

2014년 10월 11일

2백 3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손을 들고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지를 표했다. 플랜은 또한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튜브에 여자아이의 인권에 관한 영상을 새로이 게시했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명소들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플랜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교육, 생계, 보건, 아동보호를 지원하는 등 여자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교육 받은 여자아이들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의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주)마세다린은 설립 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가마로강정은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로 지난 10여 년간 고객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외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나눔의 행복

(주)마세다린이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지켜갑니다.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마세다린과 플랜코리아의 사회공헌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주)마세다린은 가마로강정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 2012년 대치 1호점을 오픈한 후 2년 만에 전국 250개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가마솥을 이용한 조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No.1 강정 브랜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을 비롯하여 4개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주)마세다린은 나눔과 상생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 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특성에 맞게 '사랑의 치킨 나눔 행사'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보육원 및 병원과 같은 시설에 방문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해 온 여러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6월 KBS에서 주관하는 '세종대왕 나눔 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플랜코리아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주)마세다린은 가마로강정 전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플랜코리아 홍보영상을 방영하면서 영상 나눔을 통한 후원활동을 개시하였다.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꾸준한 국내 봉사 활동을 발판 삼아 플랜코리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의 후원아동과 결연을 통해 장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후원아동과의 만남 및 현지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치 동남아시아,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열도
수도 자카르타
언어 바하사인도네시아어,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포함 600여 종
면적 1,904,569km²
인구 253,609,643(세계 4위)
기후 연평균 기온25~28°C, 습도 73~87%,
 열대성 몬순기후
종교 이슬람교(87%),개신교(6%), 카톨릭(3%),
 힌두교(2%), 불교(1%) 등

인도네시아의 국가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동남아시아에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말레이제도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자바족 45%, 순다족 13.6% 및 아체족, 마두라족, 바타크족, 발리족 등을 포함하여 300여 인종이 어우러져 있다.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양식을 형성하였는데, 대승불교의 유적, 힌두교 사원, 금속세공, 장식예술 등이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회와 생활문화는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이슬람교가 바탕이 되고 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식민지 경영이 시작되어 1824년에는 네덜란드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인 1942년~1945년에는 일본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에 의해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고, 매년 독립기념일에 큰 행사가 열려 그의 미를 기리고 있다.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인도네시아(Indonesia)

플랜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랜은 196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는 300여 개의 지역사회에서 약 4만 명의 후원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7,000여 명의 어린이를 재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Safe Schoo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진행하였다. 영·유아 보육 지원 부분에서는 5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으며, 200,000여 가구는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지원받았다.

주요활동

영·유아 보육 지원 8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양상태의 개선 및 양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깨끗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수 공급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설치하며, 손씻기 훈련 등을 통해 위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 모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가족 단위의 보호 체제를 강화하고, 조혼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교육 어린이들, 특히 여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술력 증진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훈련,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 번에 쏜다, 다다익선상

한 번에 9명의 아동을 추가로 후원하신 **조아라 후원자**님은 이전 봄호 소식지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새해 결심을 바로 실천에 옮길 줄 아는 화끈한 조아라 후원자님은 나눔에 대한 생각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조아라 후원자님의 2015년의 새해 계획도 궁금해집니다.



★ 자전거로 떠나는 미션 여행 특별상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떠난 **안상은 후원자**님은 후원아동이 있는 플랜차이나를 비롯해 플랜베트남, 플랜캄보디아, 플랜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플랜의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후원에 대한 생각과 플랜에 대한 신뢰를 블로그에 남긴지 어언 5년! 최근 발간한 안상은 후원자님의 책『우리 뭇 때문에 달리고 있지?』에서도 플랜의 후원아동을 만나러 갔던 순간을 남겨 플랜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휴가는 The좋은여행과 함께 The좋은여행자상

제3회 The좋은여행을 시작으로 4회, 5회, 6회에 꼭 참가하고 계신 **장정열 후원자**님은 The좋은여행의 숨은 공신입니다. 여행 준비부터, 여행 후 모임까지 활발히 참여하시며 플랜에 대한 사랑과 후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The좋은여행을 다녀오신 후 플랜에 대한 무한 믿음으로 주변 분들께 플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나눔을 널리 알고 있는 후원자십니다. 이번 7회 The좋은여행도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 우리 가족은 전부 후원 중 The좋은가족상

플랜코리아에는 가족이 함께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송찬우, 송유진, 송성훈 후원자**님은 온 가족이 10명의 후원아동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많은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다는 송찬우 후원자님은 과테말라에 4명의 아동을 후원 중이고, 과테말라 외에도 스리랑카, 우간다, 케냐, 캄보디아, 짐바브웨 등 다양한 지구촌 아이들과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 마음을 나눕니다 서신 교류상

2014년 한 해 동안 34건의 편지를 교류한 **신푸름 후원자**님의 편지에는 후원아동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The좋은편지에도 소개될 정도로 아동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주시는 신푸름 후원자님은 조만간 아동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편지로 그 동안 주고받은 내용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2014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AWARD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린이들은 한층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2014년 플랜코리아의 기록을 모아 '2014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시는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 플랜코리아를 지지합니다 The좋은파트너상

2014년에 플랜코리아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파트너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플랜의 캠페인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플랜코리아의 든든한 파트너 **에버랜드**가 The좋은파트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에버랜드에서 펼쳐질 플랜의 캠페인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33명의 지구촌 후원아동 The좋은후원상

2003년부터 꾸준히 후원을 하고 계시는 **변성운 후원자**님의 후원아동은 무려 33명입니다. 지난해 후원자 어워드에서도 시상 후보셨으나 간발의 차로 수상을 놓치셔서 많이 아쉬웠는데, 드디어 2014년에 The좋은후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봉사 없인 못살아 자원봉사상

2013년 9월부터 한 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꾸준히 플랜코리아 사무실에 나와주시는 **강미소 봉사자**와 영어면 영어, 한글이면 한글, 모두 완벽하신 **심성미 봉사자**가 2014년 자원봉사상의 주인공입니다. 197명 22458시간의 봉사가 있기에 플랜코리아는 오늘도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번역, 사무, 행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랜코리아 후원자님의 성원과 사랑이 있어 2014년 한 해도 플랜코리아가 힘을 내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5년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Plan Board

연말연시 후원자 편지 쓰기 이벤트

1 2015년을 맞이하여 후원아동에게 사랑과 열정이 듬뿍 담긴 **새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후원자님이 세웠던 계획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들,
또는 우리나라의 설날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아동에게 들려주세요.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참신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주신 후원자님께서는
매달 3분을 선정하여, 플랜 후드티(집업), 스테인레스 텀블러, Because I am A Girl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고,
후원아동에게는 한복 스티커와 달력을 **선물로 발송**해 드립니다.

후원아동은 후원자님과 후원자님이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후원아동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후원자님의 이야기 또는 우리 나라 설날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들려주세요!

- 이벤트 기간 2015년 1월 ~ 2015년 2월 말
- 이벤트 참여 방법

우편으로 보내기	이메일로 보내기 (letter@plankorea.or.kr)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작성하기
----------	--------------------------------------	------------------------

2 아울러, 후원아동에게 **새해 선물**을 보내주세요!



플랜샵 한복카드/달력/연말연시카드/스티커 세트
플랜샵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Enjoy Plan 틀린그림찾기

- ✓ 참여방법
틀린 그림을 (7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n.kr)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 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5년
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 지난 호 정답

가을호 이벤트 당첨자
김석영 / 김창원 / 박미경 / 원재연 / 황효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현대제철과 미안마 커뮤니티센터 완공식 개최

플랜코리아와 현대제철이 미안마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완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커뮤니티센터 건립 완공을 시작으로 따웅비라이 지역 내 식수·위생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웅비라이 지역개발사업은 6개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열악한 식수·위생 시설의 설치와 관련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립된 커뮤니티센터를 기반으로 새마을운동위원회와 마을 신용협동조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과 현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커뮤니티센터 완공식은 현대제철과 플랜미안마, 플랜코리아 관계자, 지역정부 관계자, 마을과 학교 관계자들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건설공제조합과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지원협약

플랜코리아가 건설공제조합과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조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공제 사업 등이 있다.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양 기관의 업무 협약식에서는 건설공제조합 임직원 및 플랜코리아 임직원이 함께 자리해 협력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눴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개·보수 사업은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내년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와 건설공제조합이 지원할 학교는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텐가라 주 시카구 타나와우 지역 내 부 우타라 마을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3개 교실을 신축하고 교내 시설 유지 및 보수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전 지점과 협력사원 아동결연 캠페인

플랜코리아가 롯데백화점 전 지점과 함께 아동결연 캠페인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31개 전 지점의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아동결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캠페인 기간 중 아동결연을 신청하면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후원자와 아동을 연결시켜 준다. 캠페인 기간 중 플랜코리아 홍보 부스를 동시 운영해 플랜코리아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후원안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그간 각종 나눔 캠페인, 모금 운동을 플랜코리아와 공동 진행해왔으며, 낙후된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세번째 롯데스쿨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아동결연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 롯데백화점 협력사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rand Mint Festival)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감성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에 올해도 플랜코리아가 함께했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가을 음악 축제로, 국내외 총 59팀의 공연과 가을 날씨가 어우러져 매년 많은 관람객들을 끌고 있다. 플랜코리아는 올해 세 번째 참여로,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Raise Your Hand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공익존에 위치한 플랜코리아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지구촌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손을 들었다. 또한 즉석 사진 이벤트, SNS참여 이벤트, 나눔팔찌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을 맞이했다. 플랜코리아는 앞으로 더 많은 축제 현장에서 지구촌 아이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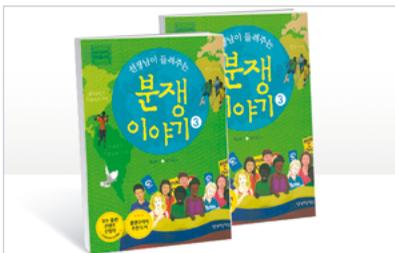
Go Crazy! Go Donate! 2PM 서울 콘서트에서 기부 부스 운영

지난 10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 열린 2PM 콘서트에 플랜코리아가 기부 부스를 마련해 함께했다. 콘서트 현장에서 운영된 플랜코리아 부스에서는 기부 물품 접수 및 아동결연 신청, 남은 외화 및 한화 후원 등 다양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2PM과 함께 선행에 뜻을 보태고자 하는 팬들은 물품을 기부해 콘서트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모인 팬들의 기부 물품은 2PM 월드투어가 진행되는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남은 외화 및 한화 기부를 통해 모인 후원금 또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2PM의 월드투어 서울 콘서트는 티켓 오픈 후 양일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2PM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분쟁이야기 3 수익금 1%, 분쟁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

도서출판 생각하는책상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분쟁이야기' 3권의 판매수익금 중 1%가 플랜코리아를 통해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발간된 '선생님이 들려주는 분쟁 이야기' 3권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과 아메리카의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을 자세히 소개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쟁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플랜코리아의 추천사가 삽입되어 있다. 본 책의 출판과 더불어 생각하는책상과 플랜코리아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분쟁이야기' 3권의 판매수익금 중 1%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필리핀 태풍 하구핏 긴급구호

12월 6일 저녁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 사마르 섬을 강타했다. 80개의 주 중 50개의 주에서 20여명 이상의 사망자와 1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플랜은 피해지역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발 빠른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14,499가구, 76,595명 이재민을 대상으로 3,499개의 쉼터 키트와 5,500개의 식수 키트, 5,500개의 위생 키트, 4,100개의 아동 키트를 배포했다. 한편 하구핏이 강타한 지역은 일년 전 태풍 하이옌이 강타해 많은 피해를 준 지역으로, 재건 활동 중인 지역에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해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재난 상황 속 트라우마는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플랜은 긴급구호 활동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25주년

세계 어린이날인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5주년을 맞았다. 영유아 사망률 감소, 학교 등록률 증가, 여자아이들에 대한 기회 증가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빈곤에 처해있으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야 할 5천 8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의 35%의 어린이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플랜은 아동권리보호단체로서 77년 동안 어린이들의 인권과 인간 존엄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활동해왔다. 25번째 기념일을 맞아 플랜의 시작을 돌아보고 재고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플랜의 청소년 대표, 가장 용기 있는 여자아이로 위촉되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합(Hap)이 Glamour 매거진이 주최한 '올해의 여성' 시상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아이 상을 수상했다. 합은 플랜의 후원아동이자 청소년 대표로, 교육에 대한 용기와 헌신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합은 2012년 플랜에서 제작한 영상인 'Three girls, One day'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이 영상에서 그녀는 학교에 가기 위한 여정을 보여줬다. 그녀가 학교에 가는 길은 안개 속 가파른 산길 등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그녀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 한계를 극복하며 학교에 간다. Glamour 매거진은 세계 곳곳의 모든 여자아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리기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가장 용기 있는 여자아이' 상에는 합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모든 역경을 이겨내 온 10명의 여자아이들에게 수여되었다.



플랜, 조혼을 끝내기 위한 UN의 역사적 결의안 환영

강제 조혼을 막기 위한 UN결의안이 제 69회 유엔총회에서 의결되었다. 플랜은 이 결의안을 여자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서 조혼을 방지하거나 끝내기 위한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지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8세 미만 여자아이 4만 1천 명이 매일 조혼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 3명 중 1명이 18번째 생일 전에 조혼을 한다. 강제 조혼을 방지 또는 종결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자아이들보다 18세 이전에 결혼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교육을 통해 여자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주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



플랜에티오피아, 여자아이들을 위한 마라톤 개최

11월 22일 에티오피아의 잔에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다. 에티오피아 마라톤 협회에서 주최한 이 대회에는 여자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을 알리기 위해 플랜에티오피아가 함께했다. 4,000 여명의 어린이들이 레이스를 펼쳤으며, 100 여명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모든 어린이들이 경주를 마치면 메달을 수여 받았고, 각 레이스의 우승자들은 유명 운동선수들로부터 상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특히나 이 대회에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를 비롯해 케냐의 장거리 선수 플로렌스 제뎀 키플라갓, 2012년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 알리스테어 브라운리 등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네팔 홍수, 취약한 계층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

지난 8월 14일부터 네팔에서 나흘간 이어진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84명이 숨지고 156명이 실종, 2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네팔 전국 75개 군 가운데 중 서부 30개 군이 피해를 입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특히 플랜의 활동 지역인 반케와 바르디아 지역에서는 1,244명 이상의 후원아동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집이 파손되었다. 후원아동과 가족들은 대피소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플랜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다. 홍수 수 도관과 우물, 화장실이 훼손되고 휩쓸려가 식수와 위생 문제도 절실하다. 한편 플랜은 식량 보급품 지원 및 텐트, 담요, 그리고 모기장과 같은 긴급구호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임시 캠프와 보건 의료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복구작업과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PLAN SHOP NEW ARRIVALS

Plan Shop

후원아동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야기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하세요!

WWW.PLANSHOP.CO.KR



시즌 카드



2015년
액자형 달력

2015년 액자형 달력
각국의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는
예쁜 달력 (검정/흰색)



한복카드
한복스티커

후원아동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그 밖에도 사랑스런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랜샵을 방문해 보세요!



Gift for sponsored child
Flower Post 꽃말엽서



Gift for sponsored child
Birthday Card 생일카드



Gift for sponsored child
Puzzle Card 퍼즐카드

송재림의

DreamVillage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Special Edition 제품만 구매해도 Dream Village 건립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Dream Village
아이스티블러



Dream Village
플랜로고시계



Dream Village
후드집업티셔츠



Dream Village
플랜반팔로고티셔츠



Dream Village
스테인리스텀블러

Dream Village
나눔팔찌

